

정서상태유도와 지시조건에 따른 4세아동의 정서조절

조 광 수 최 경 숙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4세아동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정서상태를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피험자는 평균 4세 10개월된 73명의 아동이었다. 정서유도상태(중성적, 부정적)×지시조건(정서고정화조건, 정서비고정화고정)에 피험자간 설계였다. 종속측정치는 행동측정치였던 주의력과제에 대한 반응시간과 자기정서 사후평정치였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은 본 실험전 자기정서평정 훈련을 약 1주일정도 받았다. 본 실험시, 주의력과제에 대한 예비훈련 후, 각 피험자의 정서 상태를 중화시키고 나서, 6분 길이의 편집한 영화장면을 이용하여 정서를 유도하였다. 피험자의 받은 정서상태를 고정하도록 지시하고, 피험자의 받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피험자는 주의력과제를 수행한 후 자신의 정서상태를 평정하였다. 이 결과들에 대한 집단간 계획 비교 결과에 의하면, 만 4세아동도 자신의 정서상태가 현재 과제수행을 저해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자발적으로 감지하고 적응을 위하여 자신의 정서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과정이 정서발달의 질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서발달을 적용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보다 올바르게 아동의 정서발달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 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과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난 십여년 동안 정서발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서와 정서발달을 적용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의 성취가 중요하며, 아동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서는 아동들이 정서조절을 학습하기를 기대하며, 한번 정서 표현의 유형이 학습되면 이를 통제하거나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Hurlock, 1983). 따라서, 정서 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Garber & Dodge, 1991; Gottman & Katz, 1989; Kopp, 1989; Thompson, 1990, 1993a, 1993b, 1994).

또한, 최근에는 정서조절과정이 정서발달의 질, 강도, 시기, 그리고 정서의 역동적 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서발달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들은 정서를 정적이거나 개별적인 것

으로 바라보기보다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Fox, 1994).

이러한 관점에서 Thompson(1991)은 정서조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서조절이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적 반응 특히 강력하고 일시적인 정서적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변화시키는 외적인 과정과 내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pp.27-28)

따라서, 정서조절은 경험한 정서의 강도를 낮추거나 높이고, 표현 혹은 회복시기를 늦추거나 촉진시키고, 지속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정서 반응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특정 상황에 대한 조절자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Go-

ttman & Katz,1989;Hurlock,1983;Thompson,1991).

현재 많은 연구들은 정서조절이 아동 중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rown, Covell, & Abramovitch, 1991; Cole, 1986; Meerum Terwoigt & Olthof, 1989).

그러나, 아동중기 이전에도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2-19 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DPT 집중에 따른 반응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영아는 신체적 고통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Izard & Dougherty, 1982; Izard, Hembree & Huebner, 1987). 또한, 격리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을 살핀 연구(Kagan,1976)는 2.5 ~ 3세아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아동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을 확신시키며(예를 들어, “엄마는 항상 돌아왔었어”) 부정 상태가 되지 않았다.

또한, Cole(198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정서 표현의 약화가 필요할 때 4세아도 할 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의 정서상태를 운영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그리고 정서상태 조절의 발달양상은 어떠한 지에 관한 연구는 Brown, Covell, 그리고 Abramovitch(1991)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4세아도 자신의 정서상태를 조절할 수 있었다. 4-6세 아동에게 기쁨, 슬픔, 또는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라고 하였을 때, 자신의 정서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십대초반의 아동들의 전략만큼이나 효율적인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는 생후 2년경부터 사회, 물리적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그 요구를 평가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며 조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조절을 습득하기 시작한다(Kopp, 1989).

위와 같은 연구들을 볼 때, 아동중기 이전에도 유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Meerum Terwoigt, Schene,& Harris, 1986).

그러나,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정서 조절의 적응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의 언어적 보고를 통해 연구하거나, 조절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Harris & Gross, 1989).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의 적응적 측면을 밝히기가 어렵고, 특히 아동기 이전의 정서조절에 관해 언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적 보고가 아닌 행동적 지표를 통해 정서 조절의 적응적 특징을 밝히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이 정서상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행동측정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도한 정서상태가 실제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생태화적인 타당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중기이전 연령인 만 4세아에게 정서상태를 유도한 후 두가지 측정, 즉 아동의 자기보고와 동시에 행동적 지표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서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피험자 선행 연구와 연구의 목적에 따라 피험자의 연령을 만 4세아로 선정하였다. 서울의 O유치원에서 남녀 비율이 비슷하도록 무작위로 86명을 선정하여, 정서유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73명(평균연령 4세 10개월)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험설계 정서상태(중성적/부적) × 지시조건(정서상태고정/정서상태비고정)에 따른 피험자간 설계를 하였다. 종속측정치는 주의력과제에 대한 반응시간과 자기정서 사후평정치였다.

자기정서평정판 최순복(1985)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11점척도로 제작하였다. 자기정서평정척도상에서 11점척도는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에 가까울 수록 부정적정서상태 10에 가까울 수록 정적 상태였다. 단, 자기정서평정판이 피험아동에게 제시될 때에는 척도치를 표시하지 않았다. 심리학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한 후,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정판의 얼굴정서를 명명하라고 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 28명중 응답을 거부한 두명을 제외한 응답자 26명이 올바른 내용으로 명명하였다.

정서상태 유도영화 부정적 정서유도는 만화영화 공통시대 중, 살인공룡의 공격으로 엄마공룡이 죽게 되어 아기공룡이 울부짖는 부분을 편집하였다. 중성 유도영화는 *환타지아*로써 대사가 없으며, 전원교향곡을 배경으로 한 부분을 편집하였다. 각각 6분길이로 편집하였다. 이를 만 4세 아동 20명에게 보여준 후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F* 검증 결과에서는 두 정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18)=14.920, p<.001$).

주의력과제 행동측정치로 사용하였던 주의력과제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비언어성 시자극검사였다. 모니터상에는 5cm×7cm크기의 네모난 고동색 직사각형과 동시에 이 직사각형의 안쪽에 약 1.2cm×1.2cm 크기의 정사각형이 제시되어진다.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내부의 아래쪽 혹은 위쪽에 제시된다. 이 시자극은 쉽게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써 무선적으로 2.5sec마다 100msec단위로 제시된다. 정사각형이 위쪽에 제시될 때(목표 자극)에만 피험자는 반응을 해야한다. 피험자의 반응은 목표자극이 화면상에 제시된 후 마우스버튼을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된다. 과제는 162회분을 총 5분 4초동안 주사하고 여기에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정반응인 목표자극(위쪽에 제시되는 정사각형)은 36회를 그리고 비목표자극은 126회를 제시하였다.

절차 1995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본 연구자와 유치원교사 2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실험전, 피험아동들은 자기정서평정판에 자신의 현재 정서상태를 평정하는 훈련을 받았다. 유치원교사들은 자기

정서평정판의 얼굴표정을 매일 1회이상 설명하였고, 왼쪽에 가까운 쪽에 표시를 하면 부정적 상태에 가까운 것이고, 오른쪽으로 평정할 수록 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아동들에게 설명한 후, 아동들의 정서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기정서평정훈련 초기에는 평정결과를 아동들과 함께 교사가 논의하면서 자기정서평정방법을 이해시켰다. 피험아동들은 약 7일전부터 하루 2-3회씩 수시로 실시하여, 피험아동은 최소 14회에서 20회정도의 평정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실험실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유아용 책상과 걸상이 있었다. 책상위에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마우스가 놓여있었다.

본 실험시에는 우선 주의력과제에 대한 연습 시행을 하였다. 주의력과제 연습시행후 실험자는 피험아동에게 눈을 감고 1부터 30까지 세어보게 하였다. 이는 정서상태를 어느 정도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Underwood, Moore,& Rosenhan, 1973).

정서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험아동들에게 미리 편집하여 평정하였었던 영화장면을 책상위에 있는 TV화면을 통해 보여주었다. 피험자에게 정서상태유도후 실험자는 자기정서평정판을 제시하며, 자신의 정서를 평정하게 하였다(정서 사전평정). 이어서, 지시조건으로 피험자중의 반은 정서상태고정집단으로 현재 느낀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도록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고, 나머지 피험아동의 반은 정서상태 비고정집단으로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주의력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의력과제를 마친 후에 피험자에게 현재 정서상태를 평정하게 하였다(정서사후평정).

피험자의 자기보고를 통해 신뢰로운 조작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았다. 부정적 정서상태는 0.5-3.5의 범위내일 경우, 중성정서의 경우는 3.5-6.5사이일 경우를 성공적인 정서상태유도로 보았다. 부정적 정서상태를 유도하였을 시의 자기정서평정치의 평균은 2.34였고, 중성정서 유도시에는 5.29였다.

자료분석 반응시간과 자기정서 사후평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2(유도정서)×2(지시조건)에 대한 집

단간 계획비교(planned contrast)를 하였다.

선행 연구와 정서조절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때 정서조절로 간주하였다.

첫째, 인지과제 반응시간에서 불 때, 정서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고정화 집단과 자신의 정서상태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비교정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적 정서 유도 후 정서상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서 비교정집단과 중성정서 유도 후 정서상태를 고정하도록 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경우를 정서조절의 영향으로 보았다.

둘째, 자기정서 사후평정치의 결과로 불 경우, 정서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고정화 집단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비교정화 집단간의 정서 사후평정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적 정서 유도 후 정서상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서 비교정집단과 중성정서 유도 후 정서상태를 고정하도록 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경우를 정서조절의 영향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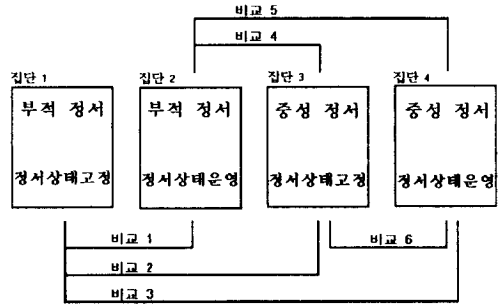


그림 1. 실험집단별 계획비교도

표 1. 정서상태, 지시조건에 따른 주의력과제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상태	지시조건		
	고정	비고정	전체
부적 M	1.34	1.02	1.17
(SD)	(0.22)	(0.25)	(0.29)
중성 M	0.95	0.66	0.80
(SD)	(0.28)	(0.21)	(0.28)
전체 M	1.15	0.85	0.99
(SD)	(0.32)	(0.29)	(0.34)

연구결과

유도정서별, 그리고 지시유형에 따른 주의력과제에 대한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각 피험자에게 유도한 정서를 유지하도록 지시한 조건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비교정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상태별 반응시간에 있어서도 부적 상태일 경우가 중성상태일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더 오래 걸렸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의 반응시간에 대한 사후비교결과를 분석한 표 2에서도 볼 수 있었다. (부적 정서상태)×(정서 고정화) 조건과 (중성 정서상태)×(정서 비교정화)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35$, $p>.01$). 그 밖의 계획비교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반응시간에 대한 집단별 계획비교 결과

Contrast	DF	Contrast SS	MS	F
(비교1)집단 1 vs. 2	1	1.72	1.72	29.26*
(비교2)집단 1 vs. 3	1	2.37	2.37	40.25*
(비교3)집단 1 vs. 4	1	7.38	7.38	125.24*
(비교4)집단 2 vs. 3	1	0.08	0.08	1.35
(비교5)집단 2 vs. 4	1	2.14	2.14	36.36*
(비교6)집단 3 vs. 4	1	1.28	1.28	21.76*
오차	69	4.13	0.06	

* $p < .01$

표 3에는 과제수행후에 실시한 자기정서 사후평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부적 정서상태 유도후 비교정화 지시를 한 경우는 5.20으로 중성 정서상태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성정서 유도 후 비교정화지시를 한 경우 6.62로서 낮은 각성 정

도의 정적 상태로 변화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서 사전평정시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정서평정시 사전평정과 사후평정간의 차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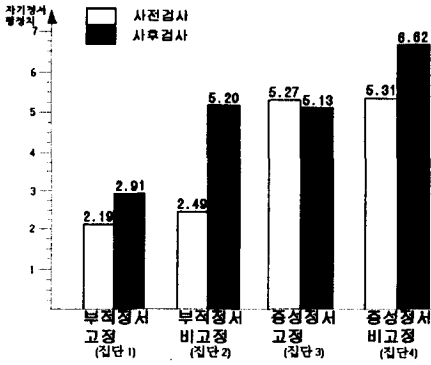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정서평정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표 3. 과제수행후 정서상태, 지시조건에 따른 자기정서평정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상태	지시조건			전체
		고정	비고정	
부적	M	2.91	5.20	4.10
	(SD)	(0.93)	(1.32)	(1.62)
중성	M	5.13	6.62	5.90
	(SD)	(0.90)	(1.16)	(1.28)
전체	M	3.98	5.88	4.97
	(SD)	(1.44)	(1.43)	(1.72)

표 4. 자기정서 사후평정치에 대한 집단별 계획비교 결과

Contrast	DF	Contrast SS	MS	F
(비교1)집단 1 vs. 2	1	87.95	87.95	72.67*
(비교2)집단 1 vs. 3	1	76.80	76.80	63.45*
(비교3)집단 1 vs. 4	1	221.27	221.27	182.82*
(비교4)집단 2 vs. 3	1	0.07	0.07	0.06
(비교5)집단 2 vs. 4	1	33.94	33.94	28.05*
(비교6)집단 3 vs. 4	1	34.45	34.45	28.47*
오차	69	83.49	1.21	

* $p < .01$

피험자에게 유도하였던 정서상태에 관한 사전평정치와 사후평정치간의 큰 차이가 나타났던 조건은 (부적정서)×(비고정지시)집단이었다. 또한, (중성정서)×(비고정지시)집단에서의 정서상태도 미약하긴 하지만 정적상태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 있다.

정서평정 사후평정치를 이용한 집단간 계획비교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도 표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적 정서상태)×(정서 고정화) 조건과 (중성 정서상태)×(정서 비고정화)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6, p>.01$). 그 밖의 계획비교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반응시간과 정서사후평정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부적 정서를 유도한 후 비고정화 지시를 한 집단과 중성적 정서를 유도한 후 정서고정화지시를 한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35, p>.01$)는 사실이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의 정서상태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아기에 있는 만 4세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서경험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즉, 자신의 정서상태가 현재 과제수행을 저해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감지하고 적응을 위하여 자신의 정서상태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측에 대해 수립했던 가설의 결과를 행동측정치와 피험자의 자기보고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의력과제 반응시간을 통해 각 집단별 계획비교를 수행한 결과, 부적정서상태를 유지하게 한 경우가 가장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성 정서상태를 피험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가장 높은 수행을 보였다. 하지만, 부적 정서인

경우일 지라도 자신의 정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비고정화 조건의 반응시간은 중성정서이면서 자신의 정서상태를 고정시켰던 집단의 반응시간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험자들은 각 정서상태에서 정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비고정조건이 모두 고정조건에서 보다 과제수행을 더욱 잘하였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정서경험상태를 운영하여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서상태는 하나의 동기상태로써 볼 수 있기 때문에(Lzard, 1991), 정서조절의 과정은 동기적 과정에 의해 즉, 어떤 목적을 수행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Fiske & Taylor, 1991). 따라서, 과제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즉, 과제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조절하려 하였고 따라서 반응시간이 더욱 빨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기정서 사후평정치를 통한 분석결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다. 각 집단별로 수행하였던 계획비교결과는 반응시간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의력 과제를 수행할 때 반응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것은(부적 상태)×(정서상태고정지시) 조건이었을 뿐만아니라 정서 사후평정결과에서 볼 때 가장 부적인 상태였다. (부적 정서상태)×(정서상태 비고정지시) 조건과 (중성적 정서)×(정서상태 고정화지시) 조건에서의 반응시간간에 유의미한 차가 없었던 것처럼, 정서상태 사후 평정치와 정서상태 사전평정치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서를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부적 상태에 있었던 아동들이 자신의 정서상태를 중성적 상태로 변화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성적 정서상태에 있으면서 정서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던 아동들은 중성정서를 고정시켰던 집단에 비해 매우 약하지만 정적 정서상태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반응시간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동

일하였다. 따라서, 반응시간과 정서사후평정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아동들은 과제 상황에 적절한 적응적 정서상태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상위정서이해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아동은 적응을 위해 상황에 대한 목적을 대치하거나 변경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각성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Stein & Levine, 1989; Stein & Trabasso, 1989). Meerum, Schene 그리고 Harris(1986)에서 사용하였던 것처럼 피험자들에게 유도한 정서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 고정조건에서 정서조절수준이 낮았다. 즉, 자신의 정서상태를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서경험상태를 운영,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정서상태를 고정화한 경우는 자신의 정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험자들의 전략 등이 과제수행의 간섭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정서조절과정이 정서발달의 질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발달을 적응에서 바라봄으로써 보다 올바르게 아동의 정서발달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연구를 통해 자기조절과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Kopp, 1989).

이상과 같은 결과를 얻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정서평정을 위해 사용하였던 자기정서평정판의 경우, 정서를 부적정서에서 중성정서 그리고 정적정서의 단차원적 구조를 상정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속에서 정서가 단차원적인 구조를 지니는 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아동에게 실시하였던 자기정서평정 훈련 과정 자체가 아동의 자기정서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훈련과정자체가 피험아동들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켰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정서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적 정서 및 중성 정서에 대한 개념도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성정서 상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Izard, 1994, 개인서신). 또한, 적응의 측면에서 부적 정서 역시 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Garber & Dodge, 1994).

그리고, 정서 및 기분유도 과제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실험자가 의도하는 정서가 유도되었는가의 문제이다(Kenealy, 1986). 왜냐하면, 피험자는 실험자의 기대효과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분유도 조작후 피험자에게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묻거나 평정할 경우, 또는 내성적인 재료를 다룰 경우 실험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지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답은 실험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동이 추측하기 쉬운 것이다(Kenealy, 1986; Meerum Terwogt & Olthof, 1989). 또한, 부적정서 유도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평정이 일상적인 사건으로써 피험자가 받아들여도록 하여 실험자 기대요건에 반응할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의 종속측정치 역시 실험자 기대요건, 연습효과, 과제지식정도에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보다 직접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Kopp, 1994, 개인서신).

정서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반적인 난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주제가 그러하듯이 정서조절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Thompson, 1993b). 첫째, 연구주제인 정서조절의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서조절이란 오로지 정서적 반응을 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서적 각성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고양시키는 것도 의미하는가? 정서통제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불쾌한 각성상태를 억제하는 방법을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주로 연구하게 되지만, 정서를 운영(management)하는 책략들은 정서적 경험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정서조절능력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속성과 근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발달연구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 연구의 방법론이다. 정서조절 발달연구는 정서발달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하며, 만약 정서의 자기통제가 정서반응의 일시적이고 강력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정서의 역동성"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Thompson, 1990, 1993b).

앞으로의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서의 역동성을 밝히기 위해 다중변인을 포괄하는 종단적 혹은 시계열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실상황의 정서조절은 실생활에서 제약될 수 있다(Thompson, 1991)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최순복(1985). 아동의 감정이입과 탈중심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wn, K., Covell, K., & Abramovitch, R. (1991). Time course and control of emotion: Ag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37, 273-287.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Fox, N. A.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a 240, vol. 59*.
- Garber, J., & Dodge, K. A. (1991). *The*

-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arris, P. L. & Gross, D.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al and apparent emotion. In J.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5-314.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972-988.
- Hurlock, E. B. (1983). *Child development*. New York: Wadworth.
- Izard, C. E., & Dougherty, L. M. (1982). Two systems for measuring facial expression. In C. E. Izard (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zard, C. E., Hembree, E. A., & Huebner, R. R. (1987). Infants' emotion expression to acute pain: Developmental change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05-113.
- Kagan, J. (1976). Emergent theme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Scientist*, 64(2), 186-196.
- Kenealy, P. M. (1986). The velton mood induction procedure: A methodological review. *Motivation and Emotion*, 10(4), 315-335.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Meerum Terwogt, M., & Olthof, T. (1989). Awareness and self-regulation of emotion in young children. In C. S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erum Terwogt, M., Schene, J., & Harris, P.L. (1986). Self-control of emotional reactions by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357-366.
- Stein, N. L., & Levine, L. J. (1989). The causal organization of emotional knowledge: A developmental study. *Cognition & Emotion*, 3, 343-378.
- Stein, N. L., & Trabasso, T.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changing emotional states. In C. Sarni and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77.
- Thompson, R. A. (1990). Emotion and self-regulation. In R.A.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8* (Vol. 36, 367-469). Lincoln, NE: Univ. of Nebraska Press.
- Thompson, R. A. (1991).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4), 269-307.
- Thompson, R. A. (1993a).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 press.
- Thompson, R. A. (1993b). Socioemotional developm-

ent: Enduring issues and new challenges.
Developmental Review,13,372-402.

Thompson, R. A. (1994).Emotion regulation: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40, vol. 59.*

Underwood, B., Moore, B. S., & Rosenhan, D. L.
(1973). Affect and self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8(2), 209-214

4-year-ol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followed by the induction of emotional state and instruction

Cho, Kwang-Su

Kyoung-Sook Choi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experiment studied 4-year-old children's regulation of the internal negative emotion as a functional perspective, which considers emotional regulation as adapting to a given situation, through a behavioral measure and self-ratings.

The subjects were 73 preschoo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4-year-old and 5-year-old. Before the experiment, the subjects had been trained to rate their emotional state using the Self-Rating-Scale(SRS) 2 or 3 time a day for 1 weeks by their teachers. When they participated in experiment, at first they practiced a dependence measure, attention task. Randomly, half of the subjects were induced negative emotion, and the others neutral emotion using 6-minute films. Instructions were used in the experiment, which was intended either to keep induced emotional state(fixation) or to open to manage their emotional state to fit themselves to the situation(non-fixation). All of the subjects were individually administered attention task scanned on a computer monitor to measure reaction time. The subjects rated their emotional state after emotional inducing(pre-rating) and after performing the attention task(post-rating).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planned contrasts made two groups at a time among the conditions of 2(emotional states) \times 2(instructions). Dependence variables were the reaction time of attention task and post-rated emotional scale values. The results supported the main idea of this study. Therefore, 4-year-old preschoolers could spontaneously regulate their emotional state in order to adapt themselves to the given situation.